

심상찮은 '공허의 유산'... '브루드워' 영광 재현?

스타2 완결판, 흥행 조짐

출시 하루만에 글로벌 판매량 100만장 돌파 확정. 확장팩·집정관 모드 등 큰 호응 유닛 추가 등 멀티플레이 전투 활력도

PC게임의 새 역사를 썼던 '스타크래프트' 신작이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신작 '스타크래프트2: 공허의 유산'이 10일 정식 출시 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스타크래프트2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하는 공허의 유산은 1998년 처음 출시돼 빅히트한 공상과학 대서사시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흥미진진한 결말을 짓는 기대작이다. 오리지널 스타크래프트가 마지막 확장팩 '브루드워'를 통해 '국민 게임' 반열에 오른 만큼, 17년간의 인기를 장식하는 공허의 유산이 또 다시 흥행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다.



'스타크래프트2'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하는 확장팩 '공허의 유산'이 출시 하루 만에 글로벌 100만장 판매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래 작은 사진은 스타크래프트2를 주제로 한 e스포츠 대회 현장. 사진제공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하루 만에 글로벌 100만장 판매

초기 반응은 좋다. 출시 전부터 이미 화제를 모았고, 출시 후에도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9월 오픈링 시네마틱 영상이 최초로 공개될 당시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상당 기간 동안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지키며 높은 기대감을 증명했다. 또 9일 출시 행사가 진행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시작 수 시간 전부터 수백명의 팬들이 현장을 찾았다. 주최측이 예상한 2000명보다 1000명 이상이 더 몰리면서 좌석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서서 행사를 즐겨야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10일 정식 출시된 공허의 유산은 이러한 사전 열기를 이어받아 하루 만에 글로벌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하며 전 세계 시장을 강타했다.

●집정관 모드 등 즐길거리 많아

이러한 인기의 이유는 풍성한 콘텐츠에 있다. 먼저 공허의 유산은 보다 많은 팬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전작인 '자유의 날개'와 '군단의 심장'이 없어도 게임을 실행하고 즐

길 수 있는 독립적 확장팩으로 출시됐다. 유저는 캠페인 모드에서 델람의 신관 아르타니스의 역할을 맡아 프로토스 함대 최후의 운명을 향한 전투와 더불어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을 상징하는 집 레이너, 케리건, 제라툴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함께 하는 재미도 크게 업그레이드 됐다. 집정관 모드와 협동전 임무 등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 모드를 도입했다. 멀티플레이 대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이들이 보다 재미있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동 편성 토너먼트'와 같은 기능을 추가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공허의 유산으로 스타크래프트2 3부작은 완결되지만 이후로도 '노바 비밀작전'과 같은 추가 임무 팩이나 집정관 모드의 새로운 사령관을 선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이다.

●인기 e스포츠 종목 가능성 높아

인기 e스포츠 종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허의 유산은 멀티플레이에 있어 자유의 날개, 군단의 심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특히 게임 시작 일꾼 수를 6기에서 12기로 대폭 늘려 상대적으로 지루했던 초반 경기 운영이 180도 바뀌게 될 전망이다. 자원을 빠르게 축적해 기계적인 활동을 줄이고 곧바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선보일 수 있는 만큼 경기 시작과 동시에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이클론과 해방선, 사도, 분열기, 가시지옥, 궤멸충 등 각 종족별로 2개씩 총 6개의 유닛이 새롭게 추가돼 더욱 다양한 전략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존 유닛들과 건물도 정교한 밸런스 업데이트를 거친 만큼 다양한 전략적 변화와 함께 멀티플레이 전투에 새로



스타크래프트2를 주제로 한 e스포츠 대회 현장. 사진제공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블리즈컨 2015'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김유진 등 기존 강자들이 계속 집권할 지, 아니면 변화된 스타일에 빠르게 적응한 신흥강자들이 나타날 지 공허의 유산 e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서울대병원 빈소에 조문객들 줄이어

장례는 국가장으로 26일까지 치르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0시 22분께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서거했다. 향년 88세.

김 전 대통령의 사망원인은 고령인데다 패혈증과 급성 신부전증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19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21일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병원에 따르면, 고령인 김 전 대통령은 2009년부터 반복적인 뇌졸중과 협심증, 폐렴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왔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반신불수를 동반한 중증 뇌졸중과 급성폐렴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

으로 치르며, 장의위원장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장지는 국립현충원이며, 발인은 26일이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된 빈소는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는 관련법과 유족의 뜻을 살펴 예우를 갖춰 장례를 준비할

것"이라며 빈소에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우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의 발길도 줄을 이었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전 대통령은 장택상 국무총리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954년 3대 민의원 선거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9선 의원을 지냈고,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문민정부를 출범 시켰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오늘의 채널A 닥터 지바고 23일 오후 7시10분

전 아나 윤영미의 갱년기 탈출



중년여성들에게 찾아오는 갱년기는 안면 홍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시작해 골다공증, 뇌혈관 등 심각한 질환까지 초래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패경까지 더해지면서 이로 인한 상실감으로 공허함, 삶에 대한 공포감까지 갖게 되면서 우울증이 심해져 지기도 한다. 이들을 위해 아나운서 출신 윤영미가 스페셜 MC로 나서 갱년기 탈출법을 공개한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다는 그는 공부부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된 식육, 그리고 우유까지 매일 빼놓지 않고 챙겨먹고 있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 갱년기를 이겨내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법이 오후 7시10분 공개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오늘의 날씨 11월 23일 월요일 (음력 10월 12일)
인천80/20, 서울80/20, 춘천80/30, 강릉90/80, 대전80/30, 광주80/30, 울릉도70/60, 광주80/30, 전주80/30, 대구70/30, 부산80/60, 제주30/60
지역 날씨 (최저/최고/기온)
주간 날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스포츠동아
www.sportsdonga.com
(우)13187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계천로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TV 프로그램 23일 (월)

채널A 02-2020-3100 KBS 02-781-1000 MBC 02-780-0015 SBS 02-2113-5000 TV조선 1661-0190 JTBC 02-751-6000 MBN 02-2000-3114 EBS 02-526-2000 @재방송 □시각장애인 위한 화면해설방송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Channel, Time, and Program Name. Includes channels like KBS1, KBS2, MBC, SBS, TV조선, JTBC, MBN, EBS1, and 지역민방.